

2026년판

KERC SUPPORTERS

유럽 주요 분야별 연구 및 정책 동향



[2025 하반기] 유럽 인공지능 연구 · 정책 동향

<작성자: 안현섭>

<요약>

유럽연합과 주요 회원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규제 간소화와 혁신 가속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25년 11월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데이터 연합 전략 공표 등 규제 유연화 기조가 강화되는 한편, AI 기가팩토리 EuroHPC 법제, InvestAI 2,000억 유로 조성 선언, RAISE 파일럿 출범 등 인프라·연구 역량 강화 정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은 SOOFI(주권 오픈소스 기반 모델) 프로젝트와 도이치 텔레콤의 산업용 AI 클라우드 가동을 통해 국가 단위 AI 주권 모델의 첫 사례를 제시했으며, 스위스,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등도 자국어와 자국법에 특화 주권 언어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6년 2월 뉴델리 AI 임팩트 정상회담에서는 안전보다 성장·확산에 방점이 두는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지각 변동이 확인되었으며, 미국 대표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전면 거부' 선언은 유럽의 독자 규범 설정 여지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Key words> 디지털 옴니버스, AI 기가팩토리, InvestAI, 데이터 연합 전략, RAISE, SOOFI, Apply AI 전략, 소버린 AI

I. 유럽의 인공지능 연구 동향

□ 대형 언어 모델 및 생성형 인공지능 부문

○ Mistral AI, Mistral 3 계열 모델 출시¹⁾

- 유럽의 대표 인공지능 모델인 프랑스의 Mistral AI는 Mistral Large 3과 소형 모델군 Ministral 3을 동시 공개하였으며, 이는 오픈소스·멀티모달·다국어 기능을 단일 모델에 통합한 유럽 최초 오픈 프론티어 모델로 평가
- Ministral 3는 단일 GPU로도 구동 가능하기 때문에 드론, 차량, 로봇, 노트북 등 엣지 환경에 최적화되어 분산 지능(Distributed Intelligence) 시대를 선도
- 코딩 특화 모델 Devstral 2(123B 파라미터), 코드 어시스턴트 CLI 툴인 Mistral Vibe 추가 출시된 바 있으며, AI 컴퓨팅 플랫폼인 Mistral Compute (NVIDIA Grace Blackwell 18,000개 기반) 개발 추진 중
- 2025년 9월 시리즈C에서 20억 유로 조달(기업가치 117억 유로), ASML의 13억 유로 투자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 ‘State of AI Report 2025’ 기준 영향력 있는 모델 수는 미국 40개, 중국 15개, 프랑스 3개로 나타나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 제시

○ 독일, SOOFI 프로젝트 출범: 주권 오픈소스 기반 모델²⁾

- 프라운호퍼 IAIS/IIS, 독일 인공지능센터, 하노버대 등 6개 연구기관과 2개 스타트업 컨소시엄은 약 1,000억 파라미터 규모의 유럽어 특화 오픈소스 LLM 개발을 추진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가 2,000만 유로를 지원(~'26년 7월)하며 산업, 행정, 교육, 의료 등 고신뢰 분야가 주된 응용 대상
- 도이치 텔레콤과 NVIDIA가 공동으로 10억 유로를 투자한 산업용 AI 클라우드를 훈련 인프라로 활용, 2026년 3월부터 SOOFI 전용 DGX B200 시스템 130개(GPU 1,000개+) 가동

1) <https://techcrunch.com/2025/12/02/mistral-closes-in-on-big-ai-rivals-with-mistral-3-open-weight-frontier-and-small-models/>

2) <https://www.heise.de/en/news/Soofi-Germany-to-develop-sovereign-AI-language-model-11083336.html>

- 추론 모델, AI 에이전트 기술 적용을 통한 구체적 사용 사례 구현이 계획되어 있으며, EU AI법 준수 및 유럽 가치 반영 설계 기대

○ 구글 딥마인드, 英 정부와 자율화학연구소 파트너십 체결³⁾

- 2026년 중 개소 예정인 DeepMind의 최초 자동화 연구 실험실 설립 (로봇·AI 기반 실험 수행)하여 초전도 신소재 개발에 집중
- AI 모델·AlphaGenome 등 최신 기술을 과학자에게 개방하여 배터리, 반도체, 의료 이미징, 태양광 신소재 발견 가속화
- 영국 AI 안전 연구소(AISI)와 독점 모델·데이터 공유 협약 체결하여 AI 기반 공공 서비스 혁신, 에너지·교육 분야의 돌파구를 목표로 함
- (성과) AI 기반 재료과학 연구의 상업화 경로 개척, 영국 '과학 강국 전략'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모델을 제시

○ RAISE(과학을 위한 유럽 AI 자원) 파일럿 출범⁴⁾

- AI 과학 정상회의에서 RAISE(Resource for AI Science in Europe) 파일럿 공식 출범 (호라이즌 유럽에서 1.07억 유로 지원)
- RAISE는 AI 연구 역량(컴퓨팅 파워, 데이터, 인재, 연구 자금)을 단일 가상 연구소로 통합하는 'AI 분야의 CERN' 개념으로, 핵심 AI 역량 연구를 담당하는 Science for AI와 과학 전 분야에서 AI 적용 담당하는 AI in Science로 구분
- 5,800만 유로 규모 우수성 네트워크와 박사 과정 네트워크 운영하여 최 우수 AI 및 과학 인재의 유치·양성
- 호라이즌 유럽에서 6억 유로 투입하여 AI 기가팩토리 전용 접근권 확보하며, 더 나아가 AI 투자를 연간 30억 유로 이상으로 확대(AI 과학 투자 2배) 목표
- (성과) AI 과학 전략·청정산업딜 연계 강화 ▲EU 기초 AI 연구 협력 생태계 조성 ▲분산된 유럽 AI 연구 자원의 통합 접근 구조 마련

3) <https://www.siliconrepublic.com/machines/google-deepmind-open-first-research-lab-discovering-new-materials>

4)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strategy/strategy-research-and-innovation/our-digital-future/european-ai-science-strategy_en

○ 스위스 SNAI, Apertus 다국어 언어 모델 출시⁵⁾

- ETH Zurich 주도, 2024년 설립된 스위스 국립 AI 연구소(SNAI)가 스위스 최초 다국어 주권 언어 모델인 Apertus 출시
- 1,000개 이상 언어(스위스 독일어 및 로망슈어 포함) 약 15조 토큰 훈련, Alps 슈퍼컴퓨터 활용하여 아키텍처, 데이터셋, 소스코드, 모델 가중치를 전면 공개
- 연방 대법원·법무부와 협력, 스위스 사법 시스템 맞춤형 적용 추진 중
- (성과) 오픈소스 완전 공개를 통한 기업·연구자 맞춤화가 가능하며, 소규모 언어 보존을 위한 AI 언어 다양성 모델을 제시

○ 포르투갈 Amalia 주권 AI 모델 개발 추진⁶⁾

- NOVA 과학기술대 주도 포르투갈 대학 컨소시엄은 포르투갈어 질문 답변, 코드 생성, 개념 설명, 텍스트 요약, 정보 해석 특화된 모델 Amalia 연내 출시할 예정
- 2025년 9월 베타 버전 테스트 완료하였으며, 코드 오픈소스는 공개 예정 (챗봇 형태 공개는 제한)
- 정부 온라인 포털 공공행정 서비스에 우선 적용, 과학 분야 분석 지원 활용 계획
- (성과) 포르투갈어 공공행정 AI 효율화 선도 및 소규모 국가의 언어 주권 확보 전략 사례 제시

□ 주요 연구소·대학교 실용 연구개발 프로젝트 성과

○ 농식품 안전 위협·식품 사기 탐지용 AI 플랫폼 TraceMap 공개⁷⁾

- EU가 공개한 해당 플랫폼은 AI를 활용해 식품 안전 리스크 평가를 간소화하였다는 점에서 혁신적
- 분산된 핵심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위험 징후를 조기 식별할 뿐 아니라, 운영자(사업자)와 배송 물량 간 연결 고리를 신속히 추적하고

5) <https://www.euronews.com/next/2025/12/01/which-european-countries-are-building-their-own-sovereign-ai-to-compete-in-the-tech-race>

6) <https://www.euronews.com/next/2025/12/01/which-european-countries-are-building-their-own-sovereign-ai-to-compete-in-the-tech-race>

7) <https://foodsafetyplatform.eu/news/european-commission-launches-tracemap/>

공급망 전체를 실시간 모니터링

- 위험 확인 즉시 부적합, 사기 제품의 신속 회수 지원
- 기존 농식품 관리 시스템 데이터와 RASFF(식품·사료 신속 경보 시스템), TRACES(무역 통제·전문가 시스템)를 각각 연동시켜 거래 패턴 및 생산 흐름을 고속으로 추적하여 의심 사업자 탐지 정확도 및 속도 향상

※ 실제로 파일럿 버전이 이미 중국산 ARA 오일 오염 영유아 분유 식별 및 회수 지원에 활용된 바 있음

○ 유럽 암 이미징 AI 인프라 구축 – EUCAIM⁸⁾

- 유럽 암 이미징 이니셔티브(Cancer Image Europe) 인프라는 2026년 말까지 6,000만 건의 암 이미지 접근 제공을 목표로 함
- 2026년 2월 유럽 AI 기반 고급 스크리닝 센터 네트워크 출범하여 AI 영상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암 예방·치료·케어 AI 솔루션을 가속화
- Apply AI 전략과 연계, 의료 부문 AI 도입 플래그십 사례로 선정
- (성과) EU 전역 연구자와 임상치의 AI 영상 데이터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였으며, 개인화 암 진단과 치료용 AI 적용 확산의 기반을 마련함

○ 유럽 게놈 데이터 인프라(GDI) 확대 구축(2026 상반기)⁹⁾

- 26개 회원국이 Genomic Data Infrastructure(GDI)를 구축 중이며, 2026년 말까지 15개국 완전 운영을 목표로 함(공동 기술 규격 구현 및 게놈 데이터 접근 관리)
- 게놈 데이터·임상 정보의 국경 초월 연구 지원을 통해 희귀·미진단 질환 해결 가속화, AI 활용 확산
- (성과) 유사 환자 사례 식별 고도화 ▲EU 전역 정밀 의료 연구 역량 향상 ▲AI 기반 질환 예측 모델 고도화 기반 마련

○ 구글 딥마인드와 스완지 대학교의 AI 연구 교육 프로그램¹⁰⁾

- 영국 스완지 대학교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부생 대상으로 한 Google DeepMind Research Ready 프로그램 수행 기관으로 선정됨('26년 6-7월 운영 예정)

8)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artificial-intelligence-health>

9) <https://gdi.onemilliongenomes.eu/>

10) <https://www.swansea.ac.uk/press-office/news-events/news/2026/02/swansea-university-to-deliver-prestigious-google-deepmind-supported-ai-research-programme.php>

- 머신러닝, 로봇틱스, 자연어처리, 설명 가능한 AI, 생물정보학, 딥러닝 등 분야 연구 프로젝트 수행 기회를 제공
- (성과) AI 연구 접근성 민주화 ▲차세대 다양한 AI 인재 발굴·육성 ▲기초 연구에서 실용 AI 연구로의 교량 역할
- **EURO-3C: EU 최초 대규모 통신-엣지-클라우드 연합 인프라¹¹⁾**
 - 2026년 MWC에서 유럽 집행위원회가 7,500만 유로 규모의 EURO-3C 프로젝트를 발표
 - 유럽 최초의 대규모 연합(Federated) 통신-엣지-클라우드 인프라의 구축으로 공공·산업 AI 워크로드를 유럽 주권 인프라에서 처리
 - (성과) 대형 통신사·클라우드 사업자와의 협력 생태계 구축 ▲AI 및 데이터 처리 전 과정의 유럽 내 완결 가능성 제시
- **호라이즌 유럽 2026-27 AI 과학 파일럿 과제 공모(1억 유로 규모)¹²⁾**
 - 집행위원회가 RAISE 전략 구체화를 위한 호라이즌 유럽 2026-27 워크 프로그램 내 5개 AI 전용 과제를 신설 (총예산 약 1억 유로, Cluster 4·6 재원)
 - 기존 클러스터 중심의 구조를 탈피하고, 수평적 워크프로그램 방식을 채택하여 AI와 청정기술의 학제 통합을 강조
 - (성과) AI 과학 전략과 청정산업 딜의 연계 강화 ▲국경 초월 AI 기초 연구 협력 생태계 조성 ▲RAISE 가상 연구소 실질화의 초석 마련
- **SAP, OpenAI, Microsoft, ‘독일을 위한 OpenAI’ 파트너십 체결¹³⁾**
 - SAP, OpenAI, Microsoft가 독일 공공부문 AI 혁신을 위한 ‘OpenAI for Germany’ 발표
 - 데이터 주권 준수를 위해 SAP 자회사인 Delos Cloud(MS Azure 기반)에서 운영되며, 국가 행정, 연구기관 직원의 일상 업무(기록 관리·행정 데이터 분석 등) 자동화 및 개선을 지원
 - (성과) 독일 공공부문 AI 전환의 주권 모델 제시 ▲데이터 주권·보안·법적 기준 충족 전제의 공공 AI 적용 사례 마련

11)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ai-act-standardisation>

12) <https://euraxess.ec.europa.eu/worldwide/india/news/eu100-million-ai-science-pilot-projects-under-horizon-europe-2026-27>

13) <https://openai.com/global-affairs/openai-for-germany/>

II. 유럽의 인공지능 정책 동향

□ EU AI법 적용 간소화를 위한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¹⁴⁾

- EU 집행위원회는 AI법, GDPR, 데이터법, NIS2 등 주요 디지털 규제에 대한 집중 개정안을 발표하여 규제 중복 해소 및 법적 명확성 강화, 혁신 친화적 규제 환경 조성을 추진
 - AI법의 고위험 AI 시스템 의무 적용 시점을 최대 16개월로 연장 제안
 - 중소기업 대상이던 간소화 기술 문서 작성, 조정된 과태료 등의 혜택을 상당히 큰 기업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
 - AI 사무국 권한 강화와 범용 AI 모델 기반 AI 시스템 감독 중앙 집중화 조치 포함
 - AI 생성 콘텐츠 마킹·라벨링 실천강령(Article 50) 적용은 2027년 2월로 연기 제안

※ (EU AI법 시행 타임라인) '25년 2월 (금지 AI 관행·AI 리터러시 의무 발효) → '25년 8월 (GPAI 모델 의무 발효) → '26년 8월 (고위험 AI 시스템 대부분 적용) → '27-'28년 (연장 적용)

<표 1: EU AI법 주요 의무 적용 일정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 반영)>

범주	기존 적용 시점	변경 후	비고
금지 AI 관행·AI 리터러시	2025.2.2	변동 없음	이미 발효
GPAI 모델 의무	2025.8.2	변동 없음	이미 발효, 기존 모델 '27.8.2까지 유예
고위험 AI(Annex III, 일반)	2026.8.2	2027.12	최대 16개월 연장 제안
고위험 AI(Annex I, 고조화)	2027.8.2	2028.8	연장 제안
AI 생성 콘텐츠 마킹·라벨링	2026.8	2027.2	6개월 연장 제안

□ 유럽 데이터 연합 전략(Data Union Strategy) 발표¹⁵⁾

- 3대 목표: ①AI용 데이터 접근성 확대 ②데이터 규제 간소화 ③국제 데이터 흐름에서 EU의 글로벌 위상 강화
 - 데이터 랩(Data Labs): AI 개발자에게 고품질 데이터 공급을 위한 데이터

14) https://commission.europa.eu/news-and-media/news/simpler-digital-rules-help-eu-businesses-grow-2025-11-19_en

15)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data-union-strategy-unlocking-data-ai>

공간 내 특수 시설을 제공하고, EuroHPC AI 팩토리 이니셔티브 통한 최초 데이터 랩 구축

- 헬스케어·제조·에너지·법률·공공행정·환경 등 핵심 분야 유럽 공통 데이터 공간에 1억 유로 투자
- 3,000만 건의 문화유산 디지털 객체를 AI 훈련용으로 개방함으로써 합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데이터셋 확대
- EU 데이터 국외 처리 공정성 평가 지침 및 부당 관행 대응 툴박스 발간 (2026년 2분기 예정)
- (전략적 합의) 데이터를 단순 규제 대상에서 AI 경쟁력의 전략 자산으로 재편하였으며, 유럽 특유의 고품질 공공·문화 데이터를 AI 개발에 활용하는 독창적 경로를 제시

□ EU AI법 최초 조화 표준 공개 심의(2025.10.30) AI법 규제 표준화¹⁶⁾

- 규제 목적 품질관리 시스템 표준안을 공개 심의하였으며, 이는 AI 법 관련 최초 조화 표준
- CEN·CENELEC에 10개 핵심 분야 표준 개발 요청: 리스크 관리,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문서화, 투명성, 인간 감독, 정확성·견고성·사이버보안 등
- GPAI 모델 의무('25.8 발효)~공식 표준 도입('27년 이후) 사이 과도기 동안 범용 AI 실천 강령(GPAI CoP)이 준수 입증 수단으로 기능
- 조화 표준 EU 관보 등재 후 해당 표준 적용 시 AI 법 준수 → 기업의 규제 대응 비용 절감 기대

<표 2: 범용 AI 실천 강령(GPAI CoP) 3개 장(Chapter) 구성 및 적용 범위>

장(Chapter)	주요 내용	적용 대상
투명성(Transparency)	모델 문서화, AI 사무국 정보 제공, 문서 품질·보안 관리(출시 후 10년 보관)	모든 GPAI 모델 공급업체
저작권(Copyright)	웹크롤러의 robots.txt 준수, 저작권 유보 식별·이행, 파일럿 사이트 배제	모든 GPAI 모델 공급업체
안전·보안(Safety & Security)	시스템적 리스크 식별·평가·완화 보고 체계, 사전 배포 안전 평가, 지속 모니터링	시스템적 리스크 GPAI 모델만 해당(OpenAI o3, Anthropic Claude 4 Opus, Google Gemini 2.5 Pro 등)

16)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ai-act-standardisation>

□ EuroHPC 규정 개정: AI 기가팩토리 법제화¹⁷⁾

○ AI 기가팩토리 규정을 법제화

- EU 이사회 EuroHPC 규정 개정안 채택하여 AI 기가팩토리(최대 5개) 건립의 법적 근거 마련
- AI 기가팩토리는 수십~수백조 파라미터 대형 모델 훈련용, 100,000개 이상 고성능 AI 프로세서·에너지 효율 데이터센터·AI 자동화 통합 필수 요건
- (공모 현황) 16개 회원국 60개 부지에서 76건 관심 표명 접수, 신청 총 규모 2,300억 유로 이상으로, 도이치 텔레콤·Brookfield 컨소시엄, 프랑스 AION(Scaleway·Iliad), 포르투갈 Altice·NOS 공공·민간 컨소시엄 등 참여 의사 표명
- 복수 회원국 분산 설치 허용, 비 EU국도 참여가 가능하나, EU 기업 과반 소유 의무
- 양자 기술 필라 추가: 호라이즌 유럽에서 EuroHPC로 양자 연구·혁신 활동 이관, 양자 컴퓨팅 역량과 AI 인프라 통합 운영

○ EIB-집행위 MoU 체결

- AI 기가팩토리 자금 조달 및 개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 EIB가 기가팩토리 컨소시엄에 맞춤형 자문 지원 제공할 예정

<표 3: AI 팩토리·기가팩토리·InvestAI 비교>

구분	AI 팩토리	AI 기가팩토리	InvestAI
규모	최대 25,000개 AI 최적화 칩	100,000개 이상 고성능 AI 프로세서	4~5개 기가팩토리 지원
목적	중형 AI 모델 훈련·응용 지원, 스타트업·연구기관 접근성	차세대 초대형 프런티어 모델 개발·훈련, 의료·과학 산업 돌파구	기가팩토리 자원 조성, 민간 투자 유인
현황	19개 추진 중('25~'26 운영, 13개국)	2026년 공모 후 최대 5개 선정 예정, '27~'28년 운영 목표	€200억 유럽 펀드 (이 중 €20억 기가팩토리 전용)
재원	EuroHPC JU + 회원국 공동 투자	InvestAI 시설+ EIB 용자+ 회원국 결속 기금	EU 예산(Digital Europe·Horizon·InvestEU) + 민간 약 €150억

17)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6/01/16/artificial-intelligence-council-paves-the-way-for-the-creation-of-ai-gigafactories/>

□ InvestAI 이니셔티브 2,000억 유로 조성 선언¹⁸⁾

- EU 집행위원장 폰데어라이엔은 파리 AI 행동 정상회담에서 2,000억 유로 규모의 InvestAI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AI 기가팩토리 전용 200억 기금도 포함됨
 - EIB 그룹이 InvestAI 시설 운영 및 기가팩토리 컨소시엄 자문·용자 검토 담당, 회원국 결속기금 투입 허용
 - AI 기가팩토리 4-5곳: 각 100,000개 최신 AI칩, 현 AI 팩토리 대비 4배 규모로 의료·과학·청정기술 등 핵심 분야 특화
 - 'AI 분야의 CERN'으로 포지셔닝하여 대형 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중소기업·연구기관도 대규모 컴퓨팅에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협력형 혁신 모델
- ※ 로드맵: '26년 1분기 공식 공모→'26년 상반기 법적 구조 확정·자본 모집→'27년 민간 투자 레버리지 중간평가→'27-'28년 기가팩토리 운영

□ Apply AI 전략 발표¹⁹⁾

- Apply AI 전략은 AI 대륙 액션플랜의 후속 조치로, 10개 산업 섹터별 (제조, 의료, 모빌리티, 에너지, 농업, 과학, 사이버보안, 공공서비스, 금융, 미디어, 문화) 플래그십 조치를 포함
 - Apply AI 얼라이언스를 출범하여 AI 공급자·산업계·학계·공공부문이 참여하는 정책 조율 포럼, 연간 회의·섹터별 보드 운영
 - AI 관측소를 설치하여 AI 도입 동향 추적 및 공공정책 권고 생성
 - AI 우선(AI First) 정책 기조를 통해 조직의 전략·정책 결정 시 AI를 우선 검토하도록 장려하고, 중소기업 대상 유럽산 '오픈소스 AI 솔루션 바이 유러피언' 방식 촉진
 - 2025년 12월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EDIH)를 AI 경험 센터(AI Experience Centres)로 개편하여 EU 회원국 및 10개 유럽 국가 소재, 유럽 지역 85% 커버

18)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eu-launches-investai-initiative-mobilise-eu200-billion-in-vestment-artificial-intelligence>

19)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apply-ai>

<표 4: Apply AI 전략 주요 섹터별 플래그십 조치>

섹터	주요 AI 플래그십 조치	연계 이니셔티브
의료·헬스케어	EUCAIM 암 이미징 인프라 확대, 유럽 보건 데이터 공간(EHDS) 연계 AI	게놈 데이터 인프라(GDI)
제조	산업 디지털 트윈, 로봇공학 AI 통합, SOOFI 산업 응용	SOOFI, 독일 AI 팩토리
에너지	에너지 분야 AI 전략 로드맵, 그리드 최적화 AI	InvestAI 청정기술 파일럿
농식품	AI 기반 기후 위해 탐지, 정밀 농업 디지털 트윈	JRC 기후 AI 도구
공공서비스	공공부문 AI 상호운용성, 행정 자동화	'독일을 위한 OpenAI'
과학·R&D	RAISE 파일럿, AI 기반 과학 발견 가속화	호라이즌 유럽 AI 과제

□ 인도 AI 임팩트 정상회담 참여 및 <델리 선언> 채택²⁰⁾

- 유럽연합은 인도 AI 임팩트 정상회담(AI Impact Summit)에 참여하여 '델리 선언' 지지: "AI의 약속은 혜택이 인류 전체와 공유될 때에만 실현된다"는 원칙 천명

※ 선언문 전체에 '리스크' 및 '안전'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장·확산 중심으로 키워드를 전환

<표 5: 글로벌 AI 정상회담 거버넌스 의제 변화 추이>

회의	시기·장소	핵심 의제	EU 포지션
블레츨리 정상회담	2023.11, 영국	'프론티어 AI' 안전·리스크 관리	안전 중심 규제 지지
파리 AI 행동 정상회담	2025.2, 프랑스	AI 행동·투자·경쟁력	InvestAI 2,000억 발표
인도 AI 임팩트 정상회담	2026.2, 인도	AI 확산·혜택의 글로벌 공유	델리 선언 지지, 주권 AI 협력
스위스 AI 정상회담(예정)	2027, 제네바	거버넌스 통합·글로벌 표준	EU 표준 수출 전략 추진 예정

- 미국 백악관 대표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전면 거부' 선언으로, EU의 독자 규제 노선과 대조, 유럽의 규범 설정 여지 오히려 확대
- 중간 강국(유럽·캐나다·인도)의 AI 주권 강화 의지를 확인하고 미·중 기술 패권에 대한 전략적 독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유럽연합-개도국과의 AI 디지털 파트너십 확대 의제를 제시하여 '신뢰할 수 있는 AI' 수출·보급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모색

20)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european-union-endorses-leaders-declaration-ai-summit-india>

□ 범용 AI 실천 강령(GPAI CoP) 서명 및 집행 체계 구축²¹⁾

○ GPAI CoP 서명·집행 현황

- GPAI CoP 최종본 발표 후 수백 개 기업이 서명 (OpenAI, Anthropic, Google, xAI 등 글로벌 프론티어 모델 업체 포함)
- 2026년 8월 중 AI 사무국 운영을 통한 정보 요청, 모델 접근, 모델 리콜 등 집행 조치 가능
- AI 사무국 역량 강화를 요구하여, 전문가 그룹이 AI 안전 유닛을 1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전체 집행 인력을 200명까지 증원할 것을 촉구
- 독립 전문가 과학 패널 공모를 개시하여 GPAI 모델의 시스템적 리스크 자문, AI 사무국 및 국가 당국 대상 권고 기능을 수행

□ AI 리터러시 의무 이행 권고

○ AI 리터러시 의무 이행 및 인재 전략²²⁾

- AI법 제4조(AI 리터러시) 의무 발효를 통해 조직이 AI 시스템 운용 관련 직원의 충분한 AI 리터러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
- EU 27% 공공행정만 AI 적극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문 AI 인식·리터러시 제고가 구조적 과제로 부상
- (AI 인재 유치·유지 위한 조치) ▲장학금·박사 프로그램 확대 ▲여성 전문가 복귀 프로그램(리턴십) ▲AI 기술 아카데미 ▲AI 펠로우십 ▲MSCA Choose Europe 연계 ▲블루카드 지침 개선
- (재교육/업스킬링) AI 대체·보완 직무 노동시장 전환 지원, 생성형 AI 시대의 직업능력 재설계 사회적 대화 촉진
- (인재 유출 방지) EU-US 디지털 협력 중단(EU-US TTC 회의 미개최)으로 독립적 인재 생태계 구축 필요성 더욱 부각

21)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contents-code-gpai>

22)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5/775923/EPRS_BRI\(2025\)775923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5/775923/EPRS_BRI(2025)775923_EN.pdf)

III. 시사점

- **규제 간소화와 인프라 가속화 전략 병행은 실용주의로의 전략 재조정**
 -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의 AI법 적용 연장·중소기업 혜택 확대는 규제 경직성 완화 신호인 동시에 기가팩토리 법제화, InvestAI 2,000억 유로 조성, RAISE 출범 등 혁신 인프라는 오히려 가속됨
 - 이는 미국의 전면 규제 완화·대규모 투자, 중국의 오픈소스 공세에 맞서 유럽만의 '신뢰할 수 있는 AI'와 '디지털 주권'을 실용적으로 재설정하는 균형 전략으로 해석됨
 - 규제 역량 강화와 투자 확대가 병행되는 점에서, EU의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스마트화에 가까움
- **국가별 주권 AI 모델의 유럽 생태계 효과와 분산 강점의 통합**
 - 독일 SOOFI, 스위스 Apertus, 포르투갈 Amalia 등 국가별 주권 언어 모델은 자국어·자국법·자국 가치 반영이라는 독자적 강점을 가지며, 오픈소스 공개를 통해 EU 전역 스타트업·기업의 상용화 기반이 됨
 - 이 모델들은 범용 거대 모델(GPT·Gemini 등)과 직접 경쟁하기보다, 특정 산업·언어·규제 환경에 특화된 틈새 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럽 본위의 구조적 강점 활용
 - 그러나 SOOFI의 2,000만 유로 예산 대비 구글의 연간 AI 예산 \$930억의 투자 규모 격차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구조적 도전으로, InvestAI와 기가팩토리의 공공 민간 레버리지 효과가 핵심 변수
- **데이터를 핵심 전략 자산으로: 데이터 연합 전략의 구조적 의의**
 - 데이터 연합 전략은 AI 훈련용 고품질 데이터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접근으로, 데이터 랩, 공통 데이터 공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유럽연합 데이터 생태계를 AI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재편
 - 문화유산 3,000만 건의 AI 훈련 개방, 합성 데이터 촉진, 부문별 데이터 공간 등은 유럽연합 특유의 역사적·공공적 데이터 자산을 AI 개발에 활용하는 독창적 경로

- 미국 AI 기업의 훈련 데이터 논란(저작권·개인정보 침해)과 대조적으로, 유럽연합의 데이터 연합 전략은 합법적·투명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AI 신뢰 기반으로 삼는 차별화 전략
-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지형 변화를 통한 유럽연합의 규범 수출 기회 확대**
 - 델리 정상회담에서 안전 중심의 거버넌스 담론이 성장·확산으로 급격히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거부' 선언은 유럽연합의 독자 규범 설정 공간을 오히려 확대하는 역설적 효과
 - EU는 중간 강국 연대(캐나다·인도·스위스 등)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AI 규범의 글로벌 보급 전략 강화, 특히 개도국 대상 AI 파트너십을 통한 EU 표준 수출 창구 확보에 주력
 - GPAI CoP 집행 본격화는 글로벌 AI 기업이 EU 시장 접근을 위해 EU 기준을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수용케 만드는 '브뤼셀 효과'의 AI 버전으로 이어질 가능성
- **인프라 구축에서 산업 적용을 통한 Apply AI의 실행 단계 진입**
 - AI 팩토리·기가팩토리·RAISE·Apply AI 전략이 동시에 이행 단계에 진입하면서 EU의 AI 정책이 개념 수립에서 실질적 산업 전환으로 이동 중
 - 의료(EUCAIM·게놈 인프라), 농업(JRC 기후 AI), 공공서비스(OpenAI for Germany) 분야에서 AI 도입 가속화는 향후 EU AI 경쟁력의 실증적 척도가 될 전망
 - AI 경험 센터(구 EDIH)의 중소기업 AI 도입 지원·연계 기능 강화는 혁신의 민주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며, 대기업 중심의 AI 전환이 유럽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